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61 색채와 생활

대한민국 학위복, 1908년 제중원 졸업식서 최초 착용

●색채와 복장

검정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 고지기처럼 일단 들어온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않는다. 모처럼 돈을 불릴 기회가 있어도 자금을 내놓기 망설이며, 돈의 사용을 즐길 수가 없으므로 주위로부터 인색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우리나라 학위복은 고종 22년(1885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제중원(濟衆院, 1908년)의 학교 졸업식 때 최초로 착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졸업식 때 석사나 박사 그리고 대학교수들이 학교행사 때 입는 학위복 위의 후드(hood)를 보면 그들의 전공을 알 수가 있다.

유럽 대학들은 학위복에 대한 규칙이 없었지만, 미국 대학들은 학위복에 대한 제한된 시스템을 규정하였다. 학위복은 캡(cap, 박사학위 모는 노란색 술, 석사학위 모는 하얀색 술, 학사학위 모는 검은색 술이 달려있음), 가운(gown), 후드(hood)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학위복 디자인 개발을 한 사람은 가드너 코드렐 레너드(Gardner Cotrell Leonard, 1866년~1921년)

이다. 그는 1887년 윌리엄스 칼리지(Williams College)의 졸업반이었던 동기들을 위해 학위복을 디자인하였다.

비렌은 그의 저서인 사람들에게 색채 판매(elling Color to People, University Books, Inc., New Hyde Park, N. Y. 1956. 비렌은 이 책에서 분류)에서 전공별 학위복을 아래와 같이 구별하였다.(사진)

1989년 흥병숙 교수는 그의 논문인 「1980년대 대중문화와 유행스타일과의 관계연구, 1989.」에서 1980년대 패션 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펑크스타일(Punk Style)’, ‘중성 스타일(Middle Sex 또는 Androgynous)’, ‘초현실주의(Surrealism)의 의상’ 3가지를 언급하였다.

1980년대의 괄목할만한 패션으로는 ‘펑크스타일’, ‘중성(中性) 스타일’, ‘초현실주의 의상’을 꼽았으며, 이들의 탄생 배경이나 전파경로에 대중문화가 깊숙이 작용했다.

펑크 의상은 영국의 킹스 로드(Kings road)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집단에 의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특히 이 의상은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권위와 지배를 무시하며, 죽음과 절망 그리고 공허를 상징하는 검은색을 숭배했다.

펑크 의상의 대표적 사례는 브라지어와 별다름이 없는 티셔츠에 그롤스 타킹 그리고 미니스커트를 걸들인 가수 마돈나(Madonna)의 차림이나 반정부 구호를 옷에 새겨 넣는 디자이너 캐더린 햄닛(Katharine Hamnett)의 의상들, 속옷을 겹쳐 입는 샬리 브램튼(Sally Brampton)의 운동복이 여기에 속한다.

중성 스타일은 성(性) 해방운동에서 시작된 유니섹스 모드(unisex mode)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대중음악의 역할이 컸다. 컬처클럽(Culture Club)의 보이 조지(Boy George)가 여성 복장 차림을 한다거나 반대로 여성인 유리드믹스 그룹(Eurythmics Group)의 애니 레녹스(Annie Lennox)가 남성 복장 차림으로 무대에 선 것이 좋은 예이다.

중성 스타일의 특징은 화장함으로써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을, 턱시도 재킷 위에 미니스커트를 덧입어 양성을, 바둑판 줄무늬를 자유롭게 조합하였다.

초현실주의의 의상은 19세기 프랑스 문학을 비롯한 고급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그 이미지에 대한 견해를 자유롭게 주관적 또는 간접하면서도 섬세하게 표현했고, 입술이나 귀의 인체 부위, 자연, 생활용품으로 사용되었다.



문화예술 기획자/철학박사·미학전공

전공별 학위 복 색채

이정경채학 (Maroon)	간호학 (Apricot)	경제학 (Copper)	공학 (Orange)	교육학 (Light Blue)
농학 (Maize)	도서관학 (Lemon)	디자인 (Brown)	무역 회계학 (Drab)	미술 건축학 (Maroon)
미학 (Black)	법학 (Purple)	보건 위생학 (Salmon Pink)	사회학 (Citron)	산림학 (Russet)
수사학 (Sliver Grey)	수의학 (Gray)	신문학 (Crimson)	신학 (Scarlet)	약학 (Olive Green)
예술 문화인류학 (White)	응변학 (Sliver Grey)	음악학 (Pink)	의학 (Green)	자연과학학 (Golden Yellow)
철학 (Dark Blue)	채육학 (Dage Green)	치과학 (Lila)	행정 외교학 (Peacock Blue)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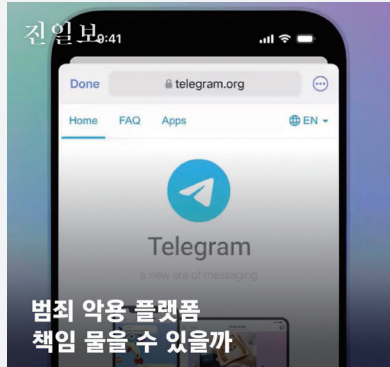
‘금’ 5개 목표 태극전사 출격

파리 패럴림픽 개회식이 29일 오전 3시(한국시간) 상젤리제 거리에서 펼쳐진다. 한국은 보치아, 탁구 등 17개 종목(선수 83명)에 출전한다. 선수단 목표는 금메달 5개·종합순위 20위다. ‘패럴림픽의 양궁’으로 불리는 보치아는 한국이 9회 연속 최정상 자리에 오른 종목이다. 이번 파리 대회로 10연패 도전한다. 탁구 역시 한국 주력 종목으로 가장 많은 선수단이 출전한다. 도쿄 대회 금메달리스트 주영대(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의 2연패, 서수연(광주광역시청)·윤지유(성남시청)의 여자복식, 개인전 2관왕이 기대된다.



폭염에 사라진 ‘모기’ 가을에 몰려온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도 비둘아진다’는 속담과 반대로 올해는 폭염이 한풀 꺾이며 가을모기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모기는 여름의 대명사인 만큼 비가 잦은 여름철 고인 물웅덩이가 많아지며 기승을 부린다. 그러나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뜨거운 햇볕에 물웅덩이가 모두 마르며 산란지 자체가 사라졌으며 높은 기온에 수명도 한 달에서 2주 정도로 줄어들며 여름철 모기 활동이 감소했다. 이번 가을에는 이상기후로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며 모기가 번식하기 적절한 환경이 조성, 10월까지 활발한 활동이 예상된다.



범죄 악용 플랫폼 책임 물을 수 있을까

텔레그램 최고경영자가 메신저 내 성범죄, 사기, 마약 유통 등 범죄 활동을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소재’가 논쟁이다. 텔레그램은 사용자들의 범죄 ‘공범’이 아닌 ‘매개자’라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내용이 회사 서버를 거치지 않고 전달되는 텔레그램은 대화 참여자가 아니면 내용을 볼 수 없다. 이에 라-우 전쟁 실상을 알리는 등 정부 감시를 피하기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텔레그램은 경찰 수사에 절대 협조하지 않는다”며 범죄에 활용하는 이들에 플랫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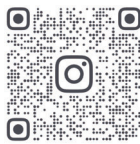


‘손흥민과 나란히’ 정호연-임지성 국제 발탁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치를 홍콩 보 감독 체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에 광주 전남 소속 또는 출신 미드필더 선수 2명이 포함됐다. 먼저 지난해 K리그1 34경기에서 2득점 4도움을 올려 영플레이어 수상한 광주FC 정호연은 올해 28라운드 중 27경기에 나서 다섯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실력을 입증받았다. 또 이번 여름 광주FC에서 EFL 챔피언십 스완지 시티 AFC로 이적한 임지성은 지난 2022년 1월 튀르키예 전지 훈련에 소집돼 아이슬란드, 몰도바와 친선경기를 소화해 국제대회에서의 기량이 기대된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